

뜨거운 '명낙대전' 냉철한 호남 민심

주말·휴일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대장동 공격 민심 역풍" 이낙연 "정치적인 부담 클 것"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티켓의 향배를 사실상 결정하는 호남 경선(25-26일)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이 정점을 향해 치달고 있다. 이 지사 측에서는 광주와 전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과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전남 압승과 광주 선전을 바탕으로 초접전 양상이나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 결국 경선 당일야 구제적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논란'에 대해 호남 민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이 지사가 호남 경선에서 여유있게 '과반 지지'를 획득한다면 대장동 논란에 대해 호남 민심이 사실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호남 경선을 통해 사실상 대선 티켓 확보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은 물론 대장동 논란의 부담을 덜면서 민주당을 넘어 진보 진영의 결집 등을 촉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지사 측에서는 대장동 논란과 관련, 이 전 대표 측이 전면 공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호남 민심에 역풍을 부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권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아우르면서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아프게 지적하는 전략적 접근에 실패하면서 호남 민심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야권의 공세에 편승하는 듯한 모습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가 적과 야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조급함이 전체적인 판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가 호남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 전 대표와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뒤진다면 전반적인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실상 호남 민심이 대장동 논란에 대해 의문점을 나타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당장, 민주당 경선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장동 특혜 논란의 정치적 부담도 안고 가야 한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대장동 논란이 호남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논란거리가 많았던 이 지사에게 대장동의 흑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발성이 큰 부동산 문제는 호남 민심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내놓고 있다. 또 의원직을 사퇴한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도 밀리면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이라는 점도 호남 민심을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장동 논란의 중심에는 특혜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며 "불안한 후보라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남 권리당원들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경선의 투표율이 정작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광주·전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의 40.29%가 참여했다. 40% 선을 턱걸이하기는 했으나, 앞선 대구·경북(63.08%), 강원(44.13%), 세종·충북(41.92%) 등의 수치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더욱이 호남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심도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북은 전날 1일차 투표율이 24.34%에 머무르며 광주·전남보다 더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투표율과 관련, 온라인 투표에 이어 전화로 하는 ARS 투표가 진행되면 호남 경선 투표율은 최종 60%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이기든 한 자릿수 접전으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8년 만에 ... 전기요금 10월부터 인상

전기요금이 10월부터 인상된다. <관전기사 9번> 한국전력은 올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번 결정은 올 2분기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고육지책을 풀이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요금 인상으로 5개월 연속 2% 넘는 물가상승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 3원/kWh 인가가 최초 도입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kWh로 조정, 즉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기료가 올라가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조치에 따라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올해 2분기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116만호와 농사용 32만호를 포함해 총 204만4782호가 총 9631억원 상당 전력을 사용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을 바다, 붉은 칠면초의 유혹

23일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갯벌 습지에 붉게 물든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칠면초는 처음엔 녹색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해 '갯벌의 단풍'이라고 불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2030 아파트 '패닉 바잉'

겪이지 않은 집값 상승세... 10채 중 3채 꼴 20~30대가 매입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 40대 뛰어넘어 전 연령대 중 1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이어 광주에서도 20~30대 젊은층의 아파트 구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20~30대의 매입 비율이 40대를 뛰어넘는 등 젊은층의 추격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 1만6616건 가운데 매입자 연령이 20~30대인 경우는 4686건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올해 광주 아파트 10채 중 3채 정도를 30대 이하 젊은층이 구매한 셈이다.

20~30대에 이어 40대 27.3%(4542건), 50대 19.4%(3221건), 60대 12.7%(2102건), 70대 이상 6.5%(108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1만5616건 중 4174건으로 26.7%를 기록했다. 이 기간 40대는 4391건(28.1%)으로 전 연령

대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30대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뚝 떨어진 것은 물론, 그동안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존 주택 시장을 주도해왔던 40대를 제치고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2030세대의 아파트 '패닉바잉'(공황매수) 분위기가 광주로 확산한 것은 광주지역 아파트값이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아파트값을 끌어 올렸던 이른바 '새 아파트'와 '브랜드 아파트' 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값이 따라 오르면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대가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2억3895만원에서 올해 8월 2억7340만원으로

14.4%(3445만원) 올랐다. 신축 위주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10년 내외의 준신축 단지를 비롯해 가격 정체를 빚었던 구축 아파트값도 최근 급작스레 오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은 시기인 올 10-12월 2030세대의 추격 매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약에 기대하기 힘든데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 거래 성수기인 올 하반기 더 늦어지기 전 내집을 마련하려는 20~30대의 실수요층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